

정주형

변호사시험대비 Step 1

강의계획서

교수

형사소송법

단권화정리

1. 최고의 단권화교재를 통한 선택·사례·기록형의 통합대비
2. 강의개시일 기준 최신판례, 최신개정법령(현재 국회통과 공포전법률)까지 완벽정리
3. 고득점을 위한 주관식 답안작성론 및 최고효율을 자랑하는 체계적인 선택형의 정리
4. 매회 선택형 복습문제 제공(13:40~13:55 연습문제, 강의는 14시부터 진행)

시 간

2016. 6. 28(화) ~ 7. 8(금), 총 18 회, 월~금, 오전·오후

오후시험 오후 1시 40분 ~ 1시 55분

오후강의 오후 2시 ~ 5시 30분

저녁강의 저녁 6시 40분 ~ 10시 10분

※ 첫날은 시험 없음 (2시 강의시작)

교 재

- 로스쿨 최종정리 형사소송법(4판, 저자, 변시·사시 선택·사례형 기출표시)
- 사례 형사소송법(7판, 저자, 최신판례문제, 사법시험·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완벽반영)

강 의 특 징**1. 강의의 특징**

(1) 예상논점 및 핵심정리 내에서 모두 출제됩니다.

- 강사가 자랑하는 것은 강사의 예상논점에서 출제가 절대 빗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가령, 5회 변사의 경우 선택형 84지문중 83지문 적중, 사례형 2순환모의고사에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2문항 이외에 모두 출제, 국민참여재판 2문제는 선택형에서 출제). 변호사시험은 국가최고시험으로서 사법시험, 5급공채, 법원행시 기타 각종 국가시험에서 다루는 중요한 쟁점이 총망라되어 있고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여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강사는 다양한 강의경험을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 등의 효율적인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2) 예상뿐 아니라 고득점을 위한 답안작성의 팁을 얻는다.

- 사례형문제는 단지 논점의 예상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워드 중심의 채점하에서 어떠한 표현과 어떠한 논거, 어떠한 근거법령이 제시되는지도 매우 중요하고, 또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강사는 다년간의 강의경험(최근 5년간 사법시험 점유율 90%이상을 유지)을 통해 예상논점의 제시 뿐 아니라 효과적인 답안작성론까지도 제시합니다

(3) 정주형 강의는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친다?

- 혹자는 강사의 강의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가르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 만약 수학시험이 덧셈(30%), 뺄셈(30%), 곱셈(40%)까지 출제되는데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고 곱셈을 가르치지 않으면 얼마나 쉽고 편하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강사는 실제 점수의 차이를 가르는 곱셈까지도 가르칠 뿐이다.
- 사례형의 경우에는 60%의 지식만 가지고도 최고의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형에서 60%를 안다는 것은 5지 선다형 중 3지문을 아는 것에 불과하여 1문제를 확실히 맞추는 것도 장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단지 과락을 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격하여야 합니다.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것 정도만 투자 하면 확실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형사소송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 의 특 징**2.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기출의 흐름 및 수험생의 득점형태****(1)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득점양상**

- 변호사시험 형사법의 경우, 전체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득점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점수편차도 다른 과목에 비하여 커서 고득점을 한 수험생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서 판가름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별도로 선택형을 대비하지 않으면 반 이상은 맞출 수 없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섞여 있는 문제를 감안하면, 형사소송법을 대비하였느냐에 따라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15개의 차이를 보입니다(점수차이로는 25~32.5). 사례형 역시 선택형을 변형한 사례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답안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주관식 시험은 상대평가요소가 강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이 잘 쓰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지 않고 편차가 적으나, 다른 사람들은 못쓰고 나만 잘쓰면 월등한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형사법의 점수양상은,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 선택형 기출의 패턴

- 1회에서 제4회까지의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법조문 40%, 판례 40%, 기타 이론이나 사례의 추론 등이 20%로 출제되었는데, 특히 1~3회까지는 수사와 증거부분을 제외하고는 반복출제되는 지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누적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출제가 이루어지면서 출제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법조문이 25%, 판례가 약 75%가 출제되었으며 약40%는 기출지문이 그대로 혹은 변형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제6회 시험부터는 기출지문의 출제비율이 최소 50~60%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법조문과 최신판례가 나머지 지문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기출문제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 강사 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로스쿨최종정리 형사소송법(4판)에서는 선택형과 사례형에 대해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표시하여, 수험생분들이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 의 특 징**(3) 사례형 기출의 패턴**

- 사례형의 경우 제1회에서 4회까지는, 사법시험에서 기출된 사례들이 변형되거나 실무형태로 출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직전 3개년 기출문제에서 50% 이상의 출제가 반영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모두 최근 학계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법시험에서 한번도 출제된 바 없는 국민참여재판의 법률관계 및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는지 등이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 예외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 증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고소취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등의 경우는 전통적 논점으로 평이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만, 제5회 사례형문제는 제1회에서 제4회의 사례형보다 난이도는 다소간 하락한 반면 배점은 90점으로(1~3회는 80점) 일정부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감안하면, 형사소송법의 경우 전형적인 논점(가령, 영장주의 예외, 공소장 변경,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의 경우에는 그에 특유한 답안작성 기술을 연마하고, 나머지 논점들에 있어서는 객관식을 준비하면서 주관식으로 출제될 경우 어떻게 쓸 것인지를 스스로 써머리해 두는 정도(근거법령, 논거 등을 정리하는 정도)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강 의 특 징**3. 출제유형을 감안한 효율적인 대비책**

(1) 선택형의 사례형, 기록형과의 관련성 – 모든 영역은 선택형의 정리에서부터

-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뉩니다.
-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사법시험2차 주관식시험과 동일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낭패이기 십상입니다. 사법시험에 대입하자면, 사례형 문제는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은 학설을 검토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등의 소송관계인의 적절한 처리 혹은 대응책을 묻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례형시험의 대비는 대부분 법조문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선택형문제의 대비가 곧 사례형문제의 대비를 겸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강사가 변호사시험의 유형분석부터 서술한 것은, 현재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지 못하는 강사의 개인적 판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과목도 많은데다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뉘다보니 과목당 수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문제당 배점이 큰 사례형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까.
- 존재하는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학설이고, 학설 가운데에서 법원이 유권적으로 선택한 것이 판례입니다. 법조문, 학설, 판례의 뿌리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존재하는 법조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은 법조문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조문의 존재를 안 연후에 판례는 무엇인지, 판례에 대한 비판해석론은 무엇인지를 차례로 학습하는 것이야말로, 변호사시험에서 요구하는 선택형, 사례형과 기록형을 가장 효율적이고 철저히 대비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 더욱이, 사례형이나 기록형은 상대평가로서 수험생간의 점수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도, 절대평가인 선택형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선택형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한다면, 사례형이나 기록형은 기본만 쓰더라도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시험이 변호사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택형을 제대로 대비한다면,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점수가 기본에 머무르지 않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 의 특 징**(2) 선택형의 대비책**

- 변호사시험은 어느 국가시험보다도 많은 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택형, 사례형, 기록으로 세분화되다보니 수험생으로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가 곤란하다. 결국, 고득점을 하기 위한 공부라 되어야 하는바, 이는 출제유형에 따라 영리하게 대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분석한 출제유형을 바탕으로 몇 가지 대비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법조문의 내용은 철저히 비교정리하여야 한다.
 - ② 수사와 증거파트에 60%이상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
 - ③ 재판과 상소파트에 의외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니 이부분을 절대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 ④ 기출지문의 정리 이외에 아직 기출되지 않지만, 기타 국가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영역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 이상의 방법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누구라도 예상가능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주로 수사와 증거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공판파트나 상소, 재심, 특별소송절차, 형사소송법 서론에서는 기존에 기출되지 않은 영역위주로 출제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기출되지 않았던 영역 중 출제가 유력한 부분은 이미 다른 국가시험에 출제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사는 수험생이 할 수 없는 일, 바로 다른 국가시험 영역을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논점을 제시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사가 지적하는 논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강 의 특 징**(3) 효과적인 사례의 대비책 -**

가. 사례핵심 4유형의 습득(영장주의 예외, 공소장변경,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 사례형문제는 단순히 지식을 정리하여 그대로 나열하면 충분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이나 구체적인 증거조사방식, 항소심의 재판 형식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택형을 대비하면서 충분히 정리하면 됩니다. 더불어 강사가 이미 그러한 것들에 대해 어떻게 답안을 써야 할지를 정리한 자료가 존재합니다. 수업중 제공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숙지함으로써 대비가 충분합니다. 선택형의 학습자체가 이러한 영역에 대한 대비를 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이 약 40%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사례형 가운데에서는, 선택형대비만으로는 제대로 써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답안구성방식이 있어서 이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답안을 서술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 대물적 강제수사에서 영장주의 예외,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에 있어서는 특유의 답안작성론을 습득하지 못하면, 답안이 매우 늘어나고 쓰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강사의 “사례형사소송법”과 로스쿨최종정리에 사례해결방법론에 구체적인 해결책이 서술되어 있다.

나. 사법시험기출문제 등

-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법시험 기출문제에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종래에는 교재의 부담으로 인해, 사법시험기출문제들을 별도로 프린트로 제공하였으나, 시험의 폭이 넓고 기출문제학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강좌에서부터 강사의 사례형사소송법(제이엔제이, 7판)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례형사소송법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가 철저히 반영되어 있고,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한 다수의 연습문제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며,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검찰사무관승진, 5급공채(행정고시) 등에서 점유율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습서입니다.
- 단,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본서의 양이 다소간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① 기출문제를 철저히 확인하고 ② 예상문제를 강사가 정확히 선별해줌으로써 학습량을 최소화하면 효율적인 사례형대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본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선택형의 사례문제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기록형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강의진도표

회 차	일 정	시 험	주요테마	로스쿨 최종정리
1,2	6/28(화)		주관식 답안작성론, 출제경향, 형사소송법서론,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수사과 내사, 수사의 조건, 경찰관직무집행법, 고소	~56면
3,4	6/29(수)	선택형 (15분)	고발과 자수, 임의수사, 감청, 임의동행, 피의자신문, 강제수사, 영장에 의한체포, 긴급체포, 현행법체포, 구속	~108면
5,6	6/30(목)	선택형 (15분)	접견교통권, 체포·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 집행정지, 보석, 구속의 당연실효, 압수·수색의 절차, 강제채혈, 압수·수색에 있어 영장주의 예외	~158면
7,8	7/1(금)	선택형 (15분)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종결, 재정신청, 공소권남용론, 소송주체, 피고인, 법원	~228면
9,10	7/4(월)	선택형 (15분) 사례형 (60분)	변호인, 국선변호인, 보조인, 소송절차의 본질론, 소송행위론, 송달,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특정, 공소장일본주의, 소송계속, 법원의 심판대상, 공소제기후 수사	~290면
11,12	7/5(화)	선택형 (15분)	공소시효, 공소장변경제도, 축소사실의 심판의무, 포괄일죄와 이중기소공판준비절차, 증거개시제도, 공판기일의 구성, 공판기일의 절차,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증인신문,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383면
13,14	7/6(수)	선택형 (15분)	증거재판주의, 거증책임의 전환, 자유심증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제311조, 제312조 제1항	~438면
15,16	7/7(목)	선택형 (15분) 사례형 (60분)	사경작성피신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제313조 제1항, 검증조서,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472면
17,18	7/8(금)	선택형 (15분)	특수매체의 증거능력, 탄핵증거, 증거동의, 자백의 보강법칙, 재판, 상소, 재심과 비상상고, 특별소송절차	~ 끝